

첫 승과 홈런, 첫 만남부터 강렬했던 KIA의 새 배터리



양현종은 5경기 만에 승리 박동원은 홈런포로 이적 신고

한 선수는 자칫 길어질 수 있었던 불운을 끊었고, 또 다른 이는 이적 첫 경기부터 공수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KIA에 없었던 두 선수의 첫 만남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귀결됐다.

KIA 에이스 양현종과 새 주전 포수 자리를 꿰찬 박동원은 26일 KT위즈전에서 호흡을 맞췄다.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박동원의 이적 첫 경기 때 마침 양현종의 선발 로테이션과 맞물리면서 두 선수의 협업이 성사됐다.

출발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양현종은 1회 말 2사 1루에서 박병호를 9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내더니 오윤석에게 적시타를 맞

아 실점했다.

양현종을 안정시켜야 할 박동원도 흔들린 마친가지였다. 박동원은 2사 1,3루에서 KT의 더블 스틸 시도 때 2루 악송구를 범해 추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제때 흐름을 끊지 못한 양현종은 1회에만 3점을 빼앗겼다.

첫 이닝을 마치고 숨을 가다듬은 두 선수는 2회부터 KIA팬들이 보고 싶어했던 장면을 선보였다. 양현종은 박동원이 원하는 코스로 어렵지 않게 공을 뿌렸다.

1회에만 무려 42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안정적인 리드 덕분인지 2회부터 7회 2사까지 17개의 아웃 카운트를 투구수 57개로 정리했다.

박동원의 탄탄한 블로킹은 양현종이 맡겨진 변화구를 구사하는데 큰 힘이 됐다. 박동원은 3회 2사 후 1루 주자 김민혁의 2루 도루를

정확한 송구로 저지, 1회의 실수를 만회하기도 했다.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간 양현종은 팀이 10-5로 경기를 마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앞선 4차례 경기에서 잘 던지고도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양현종은 5번째 도전 끝에 한국 복귀 첫 승을 수확했다. 레전드 선동열(1698타점) 전 감독을 넘어 KBO 리그 통산 3번째 1700타점까지 달성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박동원은 수비 뿐 아니라 타석에서도 양현종을 충분히 도왔다. 8-4 리드를 지키던 9회 초 KT 추격 의지를 완전히 잠재우는 큼지막한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에이스와 확실한 포수에 갈증을 느꼈던 KIA팬들은 두 선수 덕분에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이슬비 기자

KBO “강정호 복귀 불허 방침”...이달 내 발표

“마지막 법률 검토중”

KBO가 강정호(35)의 복귀 불허 방침을 정하고, 4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26일 “4월 안에 강정호 복귀 불허 방침을 발표할 것이다. 복귀를 불허했을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법률적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18일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키움은 이미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최저연봉 3000만원)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KBO와 야구팬들은 깜짝 놀랐다. 음주운전 세 차례의 상습범이 다시 KBO리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강정호는 2019년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뛴 이후 야구 경력이 사실상 단절된 35세의 노장이다.

사실 KBO가 강정호의 복귀를 막을 명분은 없다. 강정호는 1년 자격정지, 300시간의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허구연 KBO 총재는 총재 권한으로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강정호 측은 KBO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강정호의 복귀 의지가 강하다면, 법적 분쟁을 통해 KBO에 복귀할 수 있다. 법적 다툼을 진행했을 경우, KBO가 불리한 건 사실이다.

KBO의 관계자는 “4월 안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법률적 검토 끝에 복귀 불허 입장이 반복될 수도 있다. 아직 KBO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사실이다”고 말했다.

남자 골프 임성재-김시우, 국가대표 선발...항저우 AG 간다

세계랭킹으로 출전권 확보...금메달 획득시 병역 혜택

임성재와 김시우가 2022 항저우아시아게임 무대를 누빈다.

대한골프협회는 세계랭킹에 따라 상위 2명인 임성재와 김시우를 아시아게임 남자 골프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게임 골프에는 국가당 최대 남자 4명, 여자 3명이 나갈 수 있는데, 남자부는 아마추어 성적우수자 2명과 세계랭킹 상위 2명에게 출전권을 부여한다.

앞서 장유빈과 조우영(이상 한체대)이 아마추어에 배정된 2장을 차지했고, 세계랭킹 19위 임성재와 51위 김시우가 이날 프로 선수 쿼터를 최종 손에 넣었다.

프로 1명, 아마추어 2명으로 꾸려질 여자대

표팀은 미정이다. 아마추어 2명은 방신실(비봉고), 김민별(춘천여고 부설 방통고)로 정해졌지만 프로 1자리가 비어있다.

4월 마지막 주 세계랭킹으로 뽑는다는 방식은 남자부와 같지만, 투어 일정 등을 이유로 대다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골프협회는 세계랭킹 상위 10명에게 의사를 타진한 뒤 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질차에 따라 아마추어 3명으로만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안이 유력하다.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뉴스스

류현진, 불펜 피칭 소화...복귀 준비 착수

인팔이 좋지 않아 개점휴업 중인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불펜 피칭으로 컨디션을 점검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27일(한국시간) 류현진이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부상 후 불펜 피칭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지난 1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이 경기 후 왼 팔뚝 통증을 호소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MRI 검사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류현진은 지난 23일 캐치볼을 시작했다. 하루 뒤

에는 거리를 120피트(약 37m)까지 거리를 늘렸다.

캐치볼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류현진은 다음 단계인 라이브 피칭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후 시뮬레이션 게임, 마이너리그 등판 등의 복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지 언론들은 류현진의 빅리그 등판 시점을 다음 달 10일 전후로 보고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경기에 나서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13.50을 기록 중이다.

뉴스스

2경기 침묵한 손흥민, EPL 파워랭킹 1위→6위로 하락

왓포드전 4골 터트린 맨시티 제우스 1위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파워랭킹 1위 자리를 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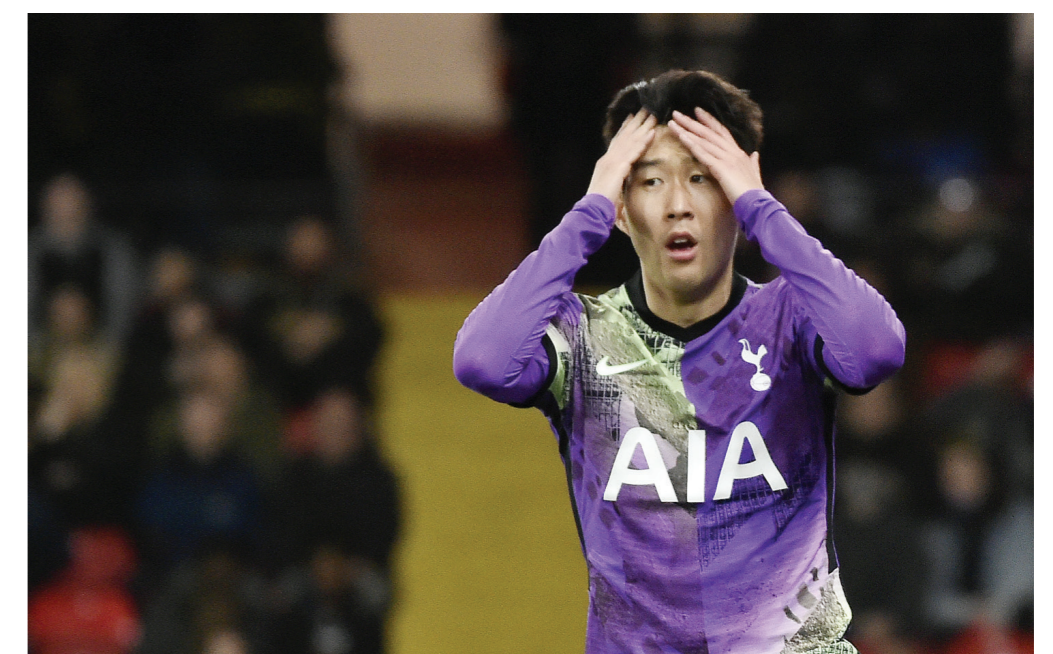
손흥민은 26일(현지시간) 영국 스키스포르츠가 발표한 2021-2022시즌 EPL 파워랭킹에서 7175포인트를 얻어 지난 발표보다 5계단 하락한 6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22일 9118포인트로 EPL에서 뛰는 381명의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스키스포르츠 파워랭킹은 정규리그 최근 5경기를 바탕으로 득점, 도움 등 35개 항목의 활약을 평가하고, 더 최근에 치른 경기에 가중치를 뒀다.

손흥민은 최근 브라이튼(토트넘 0-1 패배), 브렌트포드(0-0 무승부)와 경기에서 모두 침묵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EPL에서 17골 6도움으로 득점과 공격포인트 모두 단독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을 제치고 파워랭킹 1위에 오른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다.



제수스는 지난 34라운드에서 왓포드를 상대로 혼자 4골을 터트려 맨시티의 5-1 대승을 견인했다.

2위는 브루노 기마랑이스(뉴캐슬), 3위는 니코 포프(버리), 4위는 케빈 더 브라우너(맨시티),

5위는 제임스 워드-프라우스(사우샘프턴) 순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5위에서 10위로 내려갔다.

뉴스스

삼성화재·우리카드, 3대5 대규모 트레이드 단행

삼성화재 황승빈·이승원·정성규↔하현용·류윤식·이상욱·이호건·홍기선 영입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우리카드가 대규모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삼성화재는 세터 황승빈(30), 이승원(29), 레프트 정성규(24)를 내주고, 우리카드에서 센터 하현용(40), 레프트 류윤식(33), 리베로 이상욱(27), 세터 이호건(26), 홍기선(24)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배구 원년인 2005년 LIG화재에서 뛴 하현용은 많은 나이에도 30경기에 출전해 우리카드의 세터 역할을 소화하며 블로킹 2위에 오르는 등 선전을 펼쳤다.

류윤식과 이호건은 2년 만에 다시 삼성화재로 돌아가게 됐다.

황승빈은 2021-2022시즌 세트 6위에 오르는 등 삼성화재의 주전 세터 역할을 했다.

뉴스스

주전세터 하현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카드는 황승빈과 이승원의 가세로 세트진을 더욱 강화했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전력강화를 위해 고심하던 양 구단은 각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양 구단 감독은 “차기 시즌 전력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해 트레이드의 파장을 맞추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수단 운영도 고려했다. 팀을 떠나는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팀 전력상승을 위해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 팀 선수들이 새로운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한다”고 이번 트레이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하성 시즌 2호 홈런, 팀 역전승 견인

신시내티전 솔로홈런 등 2타점 활약...샌디에이고 9-6 승리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시즌 두 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맹활약했다.

김하성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원정경기에서 유격수 겸 9번 타자로 나서 홈런으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또 밀어내기 볼넷까지 얻어내며 2타점 경기를 펼쳤다. 김하성의 타율은 0.194로 약간 올라갔고 샌디에이고는 9-6 역전승을 거뒀다.

김하성은 3회초 팀 공격력에 불모를 트는 홈런을 날렸다. 앞선 8명의 타자 모두 범타로 물러난 가운데 김하성이 상대 선발투수 리버 산

마틴이 던진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만들었다. 산마틴이 던진 싱커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실수가 났고 김하성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1-1 균형을 알리는 한 방이었다.

김하성의 솔로홈런으로 흐름을 바꾼 샌디에이고 타선은 4회초 빅이닝을 연출했다.

제이크 크로넬워스의 우전 안타와 매니 마차도의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 기회에서 주릭스 프로파의 적시 2루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 에릭 호스머까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치며 순식간에 4점차로 달아났다. 샌디에이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월 마이

어스, 루이스 캄파사노, 트랜트 그리섬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만루에서 김하성이 연속 볼 4개를 끌라내며 밀어내기 타점을 올렸다. 샌디에이고는 바뀐 투수 제프 호프만을 상대로 한 크로넬워스의 싸움에 3타점 3루타로 9-1까지 달아나며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대량 득점 때문인지 이후 수비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4회말 조이 보토에게 볼넷, 카일 파머에게 안타를 내준 상황에서 닉 샌젤의 타석 때 포수 오스틴 놀라의 방해가 발생하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이어 폴린 모란의 2루수 앞 땅볼 때 유격수 김하성이 병살 플레이를 위해 1루로 공을 던지던 중 송구가 빠졌다. 더블플레이가 됐어도 1점을 잃을 상황이었지만 김하성의 송구 실책으로 2실점이 됐다. 김하성은 시즌 두 번째 실책을 기록했다.

뉴스스